



꽃편지 664

2024.5.20.소만
<https://cyw.pe.kr>

영적 성숙을 이루는 예배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의 ‘예배’를 통해서 과연 교인들이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 매주 매해가 지나도 변함없이 묵묵히 앉아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앞사람 뒤쪽지만 보며 드리는 예배로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악한 영들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패잔병이 되어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붕대를 감고 앉아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는 치유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 교회에서조차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 주세요. 우리는 충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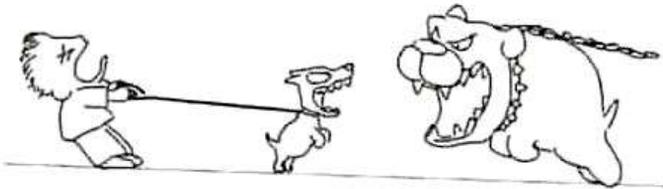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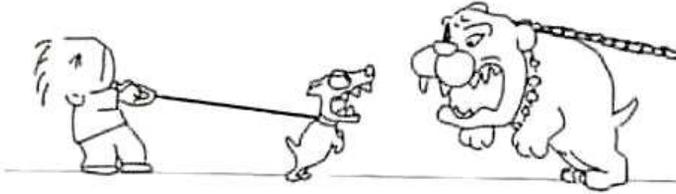


초대(초기)교회 예배는 오늘날과 같이 사각형의 공간에서 회중들이 일제히 한 사람을 바라보는 집중형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둥근 회랑(回廊, corridor) 형태였습니다. 지금도 유서 깊은 유럽의 ‘수도원’에는 수도사들이 각자 공간에서 수도를 하다가 정해진 시간에는 회랑에 모여서 서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당 형태는 세상 권력자들이 회중의 시선을 자신에게만 모아지도록 만든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구조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교회 구조와 예배 형식은 신약성경엔 그것과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대교와 이교도들의 예식을 혼합시킨 가톨릭에서 가져온 것이며, ‘종교개혁’ 6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예배 개혁’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창고’같은 교회당 짓지 말고 회랑처럼 둥그렇게 만들어서 서로서로 얼굴 바라보고 반응할 수 있는 교회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는 예배를 사모하는 최용우 올립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어둠과 씨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냥 가만히
불을 밝히면 된다.
그뿐이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55 내 안에 죄악들이 가득

요 며칠간 이상한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죄를 지을 일이 없기에 이제는 내가 남보다 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보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보다 더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남보다 더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연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입에서 중얼거립니다.
저 사람은 미친 정신 이상자야.
저 사람은 술주정뱅이 또라이야.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상대 하지 말아야돼.
저 사람은 고집이 말도 못 해.
저 사람은 여자만 밝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목소리만 큰 사람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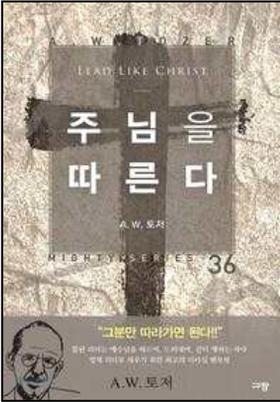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이런 죄악들이 가득하니 상대방이 그렇게 보이고 있음을....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셨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주님을 따른다



토저 마이티 시리즈 36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48쪽 19,000원 규장 2024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
참된 리더는 예수님을 따르며,
드러내며, 같이 행하는 자다
영적 리더로 세우기 위한
최고의 리더십 멘토링

1. 부름을 받은 사람

흔히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름을 받은 사람’을 준비시켜 사용하신다고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적 사역을 위한 열 가지 방법>같은 책들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부름을 받은 사람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그를 ‘기이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2. 사역의 열쇠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세상의 비즈니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방법과 비즈니스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때마다 힘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셔서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참된 사역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3. 진짜 그리스도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것이며 그것은 영적인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쉽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원리들이 아닌 '부활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섬기겠다는 열정과 갈망은 대학이나 신학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만남을 통한 변화와 체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5. 열심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의 방에서 나올 때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꾸물거리며 미루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질질 끌거나 뒤에서 세계 밀거나 앞에서 당겨야 비로소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6. 정직함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는 '정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큰 액수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주저함 없이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디도는 '돈 맡은 자'가 되기에 아주 적격이었습니다. 그의 회계장부는 검사항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회계장부의 정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점검 요소입니다.

7. 신중함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는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중 어떤 이들은 선하고 정직하지만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 없이 말하거나 행동을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좋은데 실수를 많이 하여 곤란한 일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깊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8. 저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써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선교에 뜻을 두게 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어주게 하시고, 선교회와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누군가를 위로하고 작은 선물을 주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천적인 마음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9.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요6:44) 무디는 "그리스도께 오려는 자들은 누구나 선택받은 자들이고, 그분께 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10. 정결과 변화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고 변

화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레테인은 교리를 잘 아는데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나는 현대판 그레테인입니다.

11. 구원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와 정결함이 없다면 아무리 여러 번 헌신한다고 해도 구원의 보증은 없다는 것이 신약성경의 교훈입니다. 아무리 여러 번 부흥회에 참석하고, 아무리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고백해도, 상당한 변화와 정결함이 없다면 구원의 보증은 없습니다. 참된 구원에는 변화와 정결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12. 현재의 영생

세상은 사악함의 품 안에서 잠자고 있고, 우리의 주변에는 온통 죽음 뿐입니다.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불의와 사악함과 속박의 수렁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사악함이 넘치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이들은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13. 미래의 영생

영생은 미래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미래의 영생은 묘지, 유골, 영안실, 장의사, 병원, 통증, 고통과 죽음의 극단적인 불행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 미래의 영원한 나라는 죽음이 영원히 사라지고 없는 나라입니다.

14. 불완전한 언어

왜 설교가 불완전한가? 그것은 언어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인간의 영혼 문제를 다룰 때 언어는 정말 심오해지지만, 그럼에도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언어는 유동체 같은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언어권에서 동일한 것을 표현하는데도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15. 설교자의 중요성

설교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분의 권세로 옷 입고 그분의 메시지를 준비해서 몇 안 되는 신자들 앞에 서 있는 오늘날의 지극히 소박하고 지극히 가련한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대사(大使)의 서류 가방에 담긴 최고 비밀문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16. 게으른 목회자

목회는 옆에서 그를 감독하는 사람이 없기에 자신의 재능을 썩히기 좋은 분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정오까지 잠을 자도 됩니다. 만일 전화벨이 울린다면 얼른 일어나 목소리를 가다듬고 마치 깨어있었던 것처럼 전화를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문서를 지니고 있는 첩보원이 그렇게 게으르면 큰일납니다.



17.비겁한 목회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겁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그들의 메시지와 진리를 전해놓고서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꼬리를 내립니다. 목회자도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와 진리에 대해서는 꼬리를 내리서는 안 됩니다.

18.탐욕스런 목회자

목회자들 중에 탐욕스런 목회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재정부가 그에게 얼마의 사례비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설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다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고 감히 말씀을 돈으로 거래하다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서 말씀을 빼앗아갈 것입니다.(겔3:17)

19.겁쟁이 목회자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사람들의 영혼보다 자기의 가족과 자동차와 급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적 당할까봐 두려워서, ‘저 사람은 좀 이상한 교리를 주장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나서 ‘불편한 교리들’은 피하여 편파적인 말씀을 전하는 겁쟁이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를.

20.듣는 자들도 책임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도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들었으니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설교자들은 자기가 전해놓고서 자기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듣는 사람들보다 10배 더 엄한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겔3:21)

*독서일기 -최용우

산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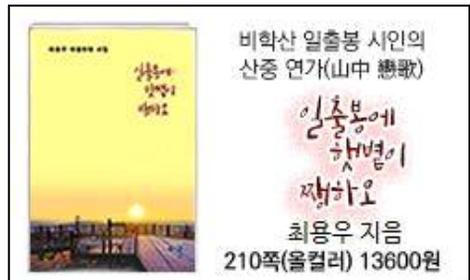
열심히 뒷산 오르는데
산에서 내려오던 사람이
“ 좋습니다 ” 하고 인사를 하네.
나도 활짝 웃으며
“ 좋습니다. ” 대답했네.
그리고 서로 스쳐
정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네

산을 오르는 내내
내 입에서 새소리처럼
“ 좋습니다. ” 라는 말이 나오네
아까 그 좋은 사람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

최용우 제9시집<일출봉에 햇별이 짱하오>

[맛길]

산에서 오고 가며 만나는 사람들과 나도 모르게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 좋습니다 ” “안전산행 하세요.” 그런데 일전에 과천 관악산 올라갈 때 나도 모르게 내려 오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나 알아요?” 얼마나 뽀뽀하던지... 또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했더니 아무 반응이 없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가? 서울 사람들은 산에까지 와서 왜 그렇게 싸잡냐? 충청도 사람 접나게.



두 나라의 참된 기원-천사들의 순종과 반항



289.우주는 창조되었다. 창조에 대한 플라톤설의 비판

눈에 보이는 사물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우주이며,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 우주의 존재는 눈으로 볼 수 있으나, 하나님 존재는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세계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창1:1)고 말씀한 거룩한 성서가 아니라면 들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 그 예언자는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거기에 있던 것은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 지혜였으며(잠8:27), 그 지혜는 거룩한 영혼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친구와 예언자로 만들며(지혜7:27), 소리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업적을 알려주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며(마18:10) 온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리는 하나님 천사들도 거룩한 영혼들에게 말한다. 이런 영혼들 가운데 하나였던 예언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창1:1)말하며, 글로 썼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설득하기에 알맞은 증인이다. 그는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을 인식해 앞으로 일어날 우리들의 신앙을 오래전에 예언했다. 이것은 모두 같은 한 영이 한 일이다.

290.우주 이전의 시간과 우주 밖 공간을 생각하는 오류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를 만드시고 그 이전에 만드시지 않은 것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논리적이지 않다. 무한히 펼쳐진 이전의 시간은 모두 똑같이 그때 먼저 지나갔으며, 다른 때보다 어느 한 때를 택해야 할 차이점도 없었다는 것이 옳은 생각이다. 그렇기에 우주 말고는 어떤 공간도 없으므로 사람들이 끝없는 공간을 생각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를 만들기 전에는 시간도 없으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은 과거의 시간을 생각하는 것도 쓸데없는 일이다. -(계속)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4



31. 깨닫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깨닫게 하십니까? 당연히 신에 대한 최소한의 신학적인 기반(지식)이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서는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는 사람을 마른 하늘에 날벼락 때리듯 뜬금 없이 강하게 치셔서 문득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섬길 때는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삼상3:1) 여호와는 '계시'로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는 그 계시를 멈추었습니다.(암 8:12)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신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세 번씩이나 스승을 찾아가 "나를 불렀습니까?"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라고 하니깐 '꼭 신학교를 가서 신학공부를 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신에 대해 열린 마음'을 신학적인 기반(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도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묶여있으면 깨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을 받고 싶어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 받을 수가 없지요. (7731)

32. 깨달음과 성령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니까?

로마 가톨릭은 주일에 드리는 미사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성서 해석의 권한이 오직 사제에게만 있고 구체적으로 그 사제는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이 매주 성서를 해석해주는대로 전달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신자들이 자유롭게 성서를 읽고 공부를 하는 분위기는 없습니다. 일반 신자들이 성서를 자유롭게 읽게 된 것도 최근의 일이지 과거에는 '라틴어 성서'를 사제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주동자인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수도원 사제였는데 성서를 읽다가 성서를 사제만 봐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성서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기술을 발명해놓고 뭐 찍을 게 없나... 하고 있던 참에 성서를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게 되어 그때부터 성서가 유럽 전역에 짝 깔렸습니다.

칼빈(John Calvin)은 성서의 해석을 사제인 교황이 아니라 훨씬 더 원천적인 차원인 '성령님'께 의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인간인 사제가 아니라 하나님인 성령님이 모든 성서 해석과 깨달음의 근원이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을 때 성령은 우리를 조명하시어 말씀과 가르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공부'만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조명까지 받아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7732)

33. 밥먹기 전에 손을 씻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일은 위생상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식당에서는 손을 씻을 수 없으니 물수건을 주어서 손을 닦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현실을 몰랐을 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음흉한 속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문제를 내세웠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자신들의 전통이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규칙이나 전통이라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구속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절대 화해서 '부정한 음식과 거룩한 음식'을 구별했지만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어떤 음식도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꽤 까다롭게 구별하는 음식 규정은 '제사음식'과 또 '술 담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또 제사음식도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면서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톨릭'은 제사도 드리고 제사음식을 먹는 것도 딱히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을 똑같이 따라 하고 있으며, 가톨릭보다도 훨씬 더 경직되어 있다고 봅니다. (7733)

34. 술과 담배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구별하는 음식이 있는데 '술과 담배'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청교도 경건주의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들의 눈에 한국인들의 음주와 흡연 습관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부터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를 강력하게 금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금주, 금연'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선교사들의 '유전'이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굳어진 관습입니다.

성경은 술 자체를 단순한 음식물로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술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와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취해서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시라'고 권하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셔서 얻는 유익보다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 얻는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굳이 술을 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담배는 술과 달리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요즘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식당에서는 '금연'이 일반화되었고 길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것이 눈치 보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기호이기에 피든 말든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피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술과 담배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니

입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나 취해서 토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긴 하네요. (7734)

35. 먹지 말라면 먹지 말 것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음식 규정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식은 음식으로만 대했고, 사도 바울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무엇이든 먹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고전8장)

앗싸아~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무엇이든 다 먹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에덴동산의 각종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도 먹을 것, 먹지 말 것을 구별하셨습니다.

지구상의 인간종족 중에 특이하게 한국인들은 못 먹는 것이 없는 민족입니다. 곰을 잡아서 쓸개를 빼먹고, 살아있는 사슴의 목에 구멍을 뚫어 빨대를 꽂아 피를 쪽쪽 빨아먹기도 하고, 꿈틀거리는 낙지를 탕탕거려서 탕탕이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천만다행으로 낙지는 신경이 없어서 몸을 탕탕 잘라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네요.) 또 눈을 꿈뻑거리는 생선을 살아있는 채로 회를 뜬다거나 온갖 뱀들을 다 잡아 술에 담갔다가 먹습니다. 하긴 원숭이 두개골을 파먹거나 쥐, 두더지, 박쥐를 먹다가 전 세계에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나라도 있긴 합니다.

순수하게 맛을 보기 위해서나 잃은 건강을 되찾는 치료의 개념으로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혐오스런 먹이를 탐하는 이면에는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범한 먹거리로는 성취할 수 없는 육체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런 음식을 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음식을 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7735)

36.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막8:15-16)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정결의식을 잘 지키고 산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무시해버리니 오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인터넷에 이런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 5명이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니 뉴턴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고, 아

인슈타인은 철가방을 들고 다니며 중국집 배달을 하고 있고, 에디슨은 자전거점을 하고 있고, 퀴리부인은 봉제공장에서 곰인형을 만들고 있고, 북한에서 태어난 갈릴레오는 자아비판을 한 후 뒤돌아서서 '그래도 주체사상은 틀렸다'라고 웅얼댄 것이 들려 아오지 탄광에서 석탄을 캐고 있더라는 유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한국에 태어났다면, 한국에 오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보다 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천문학적인 헌금을 투자하여 건물을 짓고, 거의 100가지가 넘는 헌금의 종류 하며, '총노목장안집평...'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 하며....

교회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정치인들 똥구멍이나 빨며 뒤치다꺼리나 하고 이용당하는 것 하며.... (7736)

37. 굳은 마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마음이 굳어버려 '굳은 마음' (겔36:26)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영적인 관심을 집중하면 마음이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은 마음은 생각을 갑각류처럼 딱딱한 껍데기 안에 가둡니다. 자폐증처럼 자신만의 세계에 '생각'이 묶여버립니다. 성품과 지성이 관찮은 사람에게 오히려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서북 목사'들의 '굳은 마음'에 갇혀서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과거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많은 기독교 도시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그 뿌리를 '평양신학교'에 두고 있다고 할 만큼 대단한 도시였는데, 남북이 갈리고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평양의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6.25전쟁이 터지자 평양의 목사들은 죄다 짐을 싸들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고 그들을 가리켜 '서북(북한의 서쪽 평양)목사'라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남한에서 큰 세력을 형성한 그들이 '공산당'에 당한 트라우마가 지금까지도 한국 기독교를 '공산당 망령'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성실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성인들은 고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한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는 이미 그 효력이 다해 거의 소멸된 '공산당'을 끊임없이 되살려 자신들의 적대자들에게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일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7737)

38. 들어가는 것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생각하는 방법이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환경이 자신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순가락 계급론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식들은 그것을 유지, 확대 재생산하려고 하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식들은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몇 배 더 고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수성가형’ 부자보다 ‘대물림’ 부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삶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이며,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조직은 싹을 잘라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길을 달려 갈릴리까지 찾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문제의 초점을 근본에서부터 뒤집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정결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의 정신이 인간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라고 하십니다. 외부적인 환경 조건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정신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십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 학력, 경력, 자격증, 유명한 사람의 후광이라든가 하는 껍데기를 자랑합니다. 이력이 장황한 사람은 본래 자기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7738)

39. 나오는 것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밖의 문제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습니다. 내면의 정신이 인간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데, 진중하게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밖으로 나다니며 뭘 그렇게 여기저기 참견하고 다니는지... 그래서 “바쁘다 바빠” 하며 스케줄이 꽉 차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 별로 믿음이 안 갑니다.

절간의 스님들은 1년에 두 번 ‘동안거, 하안거’라는 것을 합니다. 겨울과 여름에 일정 기간 동안 절문 밖으로 안 나가고 절 안에 딱 앉아서 ‘일념정진’이나 ‘용맹기도’를 합니다. 목회자들도 1년에 두어 차례 교회 안에 한두달씩 강제로 가두어 놓고 밖에 못 나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증들이 100일씩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그게 뭐여!” 하고 반응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아이고, 내면세계로 들어가 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구나!

끊임없이 자기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으로 바쁘게 사는 삶에 익숙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심연(深淵) 깊숙이’ 가리웠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심연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왜 심연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그곳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숨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삼상16:17)는 말씀은 마음 깊숙한 그곳 심연에서부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야 거기에서부터 기쁨과 평화가 밖으로 뿜어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우리들에게 말 씀하십니다. “밖이 아니라 속이다.” (7739)

40. 모르면 손 들고 질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정결의식’ 문제로 예수님과 한 바탕 논쟁을 벌였지만, 그 후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막7:17) 그리고 제자들과 ‘뒷담화(?)’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과 논쟁하면서 나온 ‘안과 밖’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지금까지 ‘밖’에 집중하는 ‘율법’을 따라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하시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서 물었을 것입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아주머니들이 “OOO은 빨갱이이니 구속시켜야 한다.”며 1천만명 서명을 받는 중이니 사인하라며 제 팔을 잡아깁니다. 전직 대통령을 호칭도 없이 이름만 부르며 ‘빨갱이’라고 하는 그들은 빨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마디 하려고 했더니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니 그냥 가자며 제 팔을 잡아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페러다임에 빠진 교조주의자들도 하나님의 구원론적 주권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질문할 줄 알았으니 참 다행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율법학자)들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했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의 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막 7:18)하고 되물으신 것은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웃으면서 기분 좋게 하신 말씀 같아 보입니다. (7740) ©최용우



몬스테라 (사진:최용우)

다 어디갔어?

작딸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가지고 다녔던 몬스테라가 어쩌다 우리 집에 오게 되었는데 처음 왔을 때는 새 잎사귀도 나고 한 1년 잘 자라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터 더이상 자라지 않다가 또 어느 날부터 잎이 조금씩 황금색으로 변했다.

몬스테라는 자라면서 잎이 여러 색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데 특이한 색깔은 가 격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어서 우와~ 노란 황금색으로 변하려는 갑다... 하고 내심 기대를 했다.

그런데 그게 '죽어가는 것'이었다. 왜 우리 집에만 오면 식물들이 죽어가는 거야~ 검색해보니 <습도가 높아도 누렇게 변색이 됩니다. 대부분 물 주기를 너무 자주하여 뿌리가 젖어있을 때입니다.>

음... 몬스테라 주인이 아빠에게 부탁하기를 “엄마가 물 많이 못 주게 잘 감시하세요”라고 했었는데... 일단 노란 잎을 다 잘라내어 은폐를 시키자.

총 쏘고 왔다

2박 3일 동안 비실대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내와 함께 투표소에 가서 총 두 방 빵빵! 쏘고 왔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에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오늘 사전투표를 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은 “투표(ballot)는 총알

(bullet)보다 강하다”라고 연설을 했다. 영어의 철자와 발음도 비슷해 선거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말이다.

과거에는 상대방을 죽여야 권력을 쟁취할 수 있었다. 그런 살벌한 권력 투쟁을 하다가 사람들은 “다 죽여놓고 나 홀로 권력을 가져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나. 최소한 죽이는 것만은 하지 말자.” 해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가 ‘선거’이다.

상대를 진짜 죽이던 ‘총알’이 ‘투표’로 대체 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투표 한 번은 총알 한 방과 같이 무서운 것이다. 내가 총알을 쏘지 않으면 상대방 총알에 맞아 내가 디진다.



따끔!

1년 중 가장 많은 꽃이 피는 봄이라 사진 찍는 일이 즐겁고 재미있다. 땅바닥에 거의 없드려 꽃에 카메라를 바짝 대고 접사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따끔! 깜짝 놀라 카메라를 떨어뜨릴뻔 했다.

벌이 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쎈 강도의 따끔! 이라 “이게 뭐야? 뱀 아냐?” 사방을 살펴보았는데 뱀이 나올만한 곳은 아니고, 뭐지? 흔적이 없다.

무슨 벌레인지는 모르지만 독침을 쏘고 완벽하게 은폐를 한 것으로 봐서 훈련을 잘 받은 벌레 병사인 것 같다. 손가락이 부어올랐다. 계속 마사지를 하니 부기가 빠지면서 통증도 가라앉았다.

시간 지나니 쏘인 흔적만 남았다. 소량의 독이 몸에 들어가면 오히려 약이 된다. 진통제도 소량의 독이라고 한다. 어쨌든 꽃 사진도 찍고 독 ‘약’도 한방 맞았으니 일거양득이다.



리발

한 번에 딱 머리를 깎는 일이 드물 정도로 요즘 미용실은 바쁜가, 미용실 방문 세 번째 만에 드디어 이발을 했다.

커트는 2-30분이면 끝나지만 커다란 독수리 등지는 두 시간씩 걸린다고 한다. 뺨뚱 미용실 문을 열어보고 아주머니들이 앉아 있으면 그냥 문을 살짝 닫고 돌아온다. 아직도 아주머니들의 수다는 도무지 적응이 안돼...

내가 10년도 넘게 단골로 가는 '주노헤어' 원장님 실력 장난 아니다. 나의 두상도 모양이 장난 아닌데, 튀어나온 부분은 들어가 보이도록 커트하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볼륨을 주어 튀어나와 보이게 해서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잘 만져 준다. 그래서 아내도 이발을 하면 항상 만족스러워 한다.

나는 군인처럼 비교적 짧은 머리가 어울리는데 겨울에는 촛지 말라고 살짝 길게, 여름엔 시원하게 알아서 잘 잘라 준다.



영영이가 큰 의자

주차장 옆 재활용품 버리는 곳에 누군가 '의자, 책상, 책꽂이' 세트로 재활용 스티커를 붙여서 내왔다. 의자가 눈에 띄어서 살펴보니 고장나서 버린 게 아니라 필요 없어져서 내놓은 의자였다. '등받이가 낮은 의자가 하나 있었으면 했는데 잘 됐다.' 하고 의자를 뒤집어서 머리에 이고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깨끗이 닦고 소독을 하니 근사하다. 의자의 폭이 넓은 것이 아무리 큰 영영이라도 충분히 받아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것이 맘에 든다. 사실은 의자에 양반다리로 앉을 때가 많은데 지금 있는 의자는 너무 꼭 끼어서 조금 불편했었다.

내 방의 의자는 아내 방에 가져다 두고, 아내 방에 있던 의자는 또 뒤집어서 머리에 이고 가 재활용장에 내놓았다. 그랬더니 필요한 누군가가 내놓은 의자를 금방 가져갔다.



하나님 나라 산책

나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산책한다. 주로 강가를 따라 걸으며 녹음 우거진 산을 보고, 멀리 사람들이 쌓아 올린 즐비한 아파트 단지들을 보고,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오늘은 깜짝 선물로 하늘에 날아가는 헬리콥터를 본다.



온 세상을 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진동시키며 날아가는 헬리콥터에 마치 꿀벌이 밭에 달고 다니는 주머니처럼 '물주머니'가 달려 있다. 산불이 나면 날아가서 끄는 산불 진화용 헬리콥터이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가야 볼 수 있는 '먼 나라'가 아니고 마음의 눈을 뜨면 지금 오늘 여기에서도 보이는 '가까운 나라'이다. 둘러보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산책했다.

항아리

“오왕~ 누가 항아리를 버렸네?”

재활용품을 버리는 곳에 누가 항아리를 내놓았다. 뒤집어보니 멀쩡하다. “밑이 안 빠졌는데... 멀쩡해.” 하지만 우리 집에는 장독대가 없기 때문에 항아리 좋은 것을 알면서도 가져갈 수는 없다. 항아리를 몇 번 굴러 보고 아쉬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린다.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가지고 싶은 것이라도 그것을 내려놓거나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을 '절제(節制)'라고 한다.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탈이 난다.

성경에서 '절제(enkrateia)'는 자신의 감정, 충동, 욕구, 언어, 성적 도덕적 타락과 방탕, 술취함, 혐의 사용까지 포괄하는 성령의 열매이다. 절제는 '경건'과 '거룩함'(holiness)에 이르게 한다.

오! 버려진 항아리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진지해지다니.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제650회 천태산(392m 공주)

천태산은 온 산의 바위가 모두 구리빛으로 빛나고, 바위마다 구멍이 뚫려 있어 동혈산(銅穴山)이라고도 한다. 백제 시대 세워진 동혈사가 있다. 김중서 장군이 산 아랫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천태산 동혈사는 산비탈에 지어진 절인데 전망이 가장 좋은 나한전 앞에 고려시대에 세워진 이형석탑이 서 있다. 무슨 문화재로 보호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12년 전에 왔을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새 3층 석탑 앞 바위 끝 소나무 아래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 있네.

누군가가 세운 석탑이 천년의 두꺼운 이끼옷을 입고 오늘도 변함없이 서 있는 것처럼, 저 부처님도 앞으로 천년 이상 저 자리에 앉아서 용맹정진 하시겠지. (4.10)



▲제651회 전월산(260m)

전월산 올라가는 중턱에 ‘며느리 바위’가 있다.

옛날에 마음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부자가 있었는데 심성이 곱고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 어느 날 백발노승이 찾아와 시주를 부탁했는데 시아버지가 스님의 바람에 퇴비를 한 삽 넣어주는 광경을 며느리가 보게 되었다. 며느리는 마을을 벗어나는 스님께 쫓아가 시주를 하고 시아버지의 용서를 빌었다.

스님은 며느리에게 “내일모래 뒷산인 전월산에 오르되 뒤를 보지 말고 정상까지 올라가시오” 며느리는 노승이 알려준 날 산을 올랐고 천둥번개가 쳐서 마을이 몹시 궁금했지만 참고 전월산 정상까지 다달았으나 시아버지 비명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마을은 바다처럼 물속에 잠겨있었다. 뒤를 돌아본 며느리가 바위로 변해버렸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며느리 바위라고 불렀다는 전설따라 삼천리~ (2024.4.17)



▲제652회 도락산(964m 단양)

도락산은 소백산과 월악산 사이에 걸터앉아 있는 바위산이다. 도락(道樂)은 “깨달음을 얻는 데는 나름대로 길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또한 즐거움이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송시열이 붙인 이름이라 함.

최단코스인 ‘내궁기’에서 11시 출발하였다. 바위와 철봉이 나오고 계단과 급경사이지만 우와~ 탄성이 절로 나오는 풍경을 보면서 쉬엄쉬엄 올라갔다. 쾌청한 날씨에 도락산의 진면목을 보고 천천히 하산하였다. 왕복 3.6km, 시간은 의미 없지만 4시간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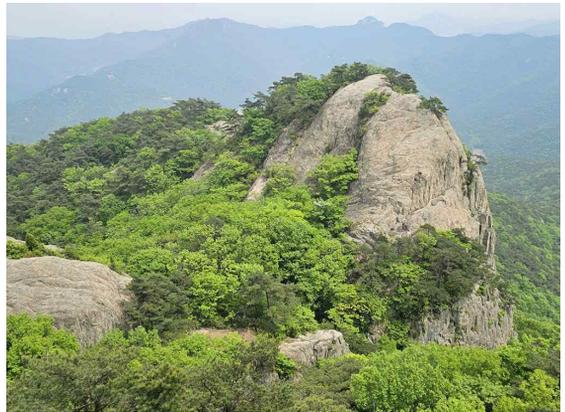
돌아오면서 4개월 전 구봉산 갔다가 내려오며 어느 집 마당에서 잠깐 쉬었는데 전화자 사모님이 사과나무에 걸어놓고 깜빡 잊은 스틱을 찾으러 갔다. 집 주인이 짝대기 찾아가라고 사과나무에 한 달을 그대로 걸어놓았었다고 한다.^^ (2024.4.23)



▲제653회 변산 쇠뿔바위봉

쇠뿔바위봉은 이번에 새롭게 블랙야크+명산으로 지정된 산이다. 그동안 이런 멋진 산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다니.

청림마을회관 앞 주차장에 주차하고 어느 집 마당을 통과하여 산행 들머리로부터 약 2km 오르니 ‘쇠뿔바위’ 표시목이 있다. 그곳이 정상 인증 장소이다. 쇠뿔바위는 어디 있지? 낭떠러지 옆으로 길이 있어 무조건 가보았더니 확 트이는 전망대가 나온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곳이 서뿔바위 꼭대기였다. 뿔 위에서 뿔을 찾다니.) 쇠뿔바위봉은 산 모양이 소의 뿔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동뿔바위봉과 서뿔바위봉이 있는데, 서뿔바위봉 정상 전망대에서 동쇠뿔바위봉을 볼 수 있고 동뿔 정상은 비법정탐방로라 준법정신에 투철한 형제는 법을 준수했다.^^ (2024.4.30. 동행 최8남)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씨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소만 -진짜 여름입니다.

소만(小滿) 때는 예전 같으면 보릿고개가 찾아오던 힘든 시기입니다. 요즘은 논밭에 보리를 거의 안 심기 때문에 일찍 모내기를 합니다. 채소밭에는 온갖 허브가 꽃을 피웁니다. 고수, 차이브, 영경귀, 타라곤, 타임, 오레가노, 딜, 펜넬, 금잔화, 박하, 한련화, 루피너스, 카모마일, 톱풀등등... 예전엔 없었던 새로운 채소들이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들어와 당당히 우리 땅에, 밭에 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식물들의 국적이 별 의미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들꽃편지>는 24절기 따라 1년에 24회를 발행하던 쪽지였는데 지금은 사정상 격으로 12회 발행을 합니다. 총알보다도 더 빠른 인터넷 핸드폰 시대에 그래도 한달씩 기다려 종이를 만지는 손맛이 재미있지 않나요? ㅎㅎ



②표지사진 이야기

항상 꽃이 가득한 동네 교회 입구에 일명 손가락선인장이라고 불리는 백단선인장 붉은꽃이 피었습니다. 화분이 근사해서 마치 꽃병에 꽂은 것 같습니다. 우리집 마당에도 오래된 백단선인장이 있는데 저렇게 한번 만들어봐야겠습니다. 꽃은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감, 우울감, 분노, 적개심, 피로감 등이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꽃은 사회적·심리적·육체적으로 사람과 사회를 건강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해 줍니다. 꽃 한송이 없는 장소는 너무 삭막합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성동-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318쪽 15000원 -2024.5.28 출간!

햇별23 '동행'시리즈 네 권중에 세 번째 책입니다.

81.마태-예수어록 692쪽 28000원 -2024.3.19. 출간!

80.아내에게 바치는 시(시집11) 컬러216쪽 15000원 -2023.12.26. 출간!

79.들꽃편지20권-호박꽃호 컬러510쪽 30200원 -2023.12.20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76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4.4월 재정결산

2024년 4월(1-30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1004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상호 이인숙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선한열매교회 새벽기도 선한열매교회 안디옥교회 함안중앙교회
총 24분이 1,00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4.5.18.일까지 7811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82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숨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해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새로 나온 책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최용우 동행 시리즈>

1. 하동-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320쪽 14300원
2. 예동-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320쪽 14300원
3. **성동-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318쪽 15000원**
4. 화동-주님과 화동하는 삶 /320쪽 15000원

최용우 318쪽 15000원 퍼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가 흐를수록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자신을 경험시켜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음성’으로 함께 하였고, 신약시대에는 사람의 ‘몸’으로 직접 함께하셨고,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만날 수 있기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에게 문을 열어 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고전12:3)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은 신자이고(요15:26,16:14)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드러낼 수도 없고, 또 교회의 일을 해도 ‘육신으로’ 하기에 자신만 드러냅니다. 신자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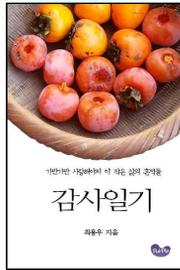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소서. 신자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288편의 성령님과 동행 글 모음 15,000원 318쪽 퍼플



감사일기

가만가만 사랑해야지 이 작은 삶의 흔적들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를 한 개씩 주워 모아 365개를 바구니에 예쁘게 담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별게 다 감사꺼리라는 것을 아는 재미있는 책! 14,100원 392쪽 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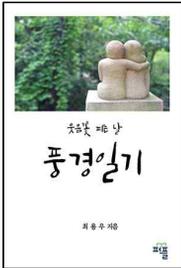
햇빛일기

환구름 떠가는 파란 하늘에 햇빛이 밝아 세상이 뽕송뽕송 부드러운 공기를 마시니 또 하루를 참 잘 살았구나. 주변의 사물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고 사색한 366편의 순수한 기록 14,100원 396쪽 퍼플



행복일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이 세상 곳곳에 다른 모습으로 숨어있는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숨바꼭질처럼, 때로는 놀이처럼 일년 동안 열심히 찾은 365편의 따뜻한 행복글 모음 14,200원 396쪽 퍼플



풍경일기

풍경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걸어가면 거리가 숨을 쉽니다. 발길 닿는 곳엔 연초록빛 번지고요 햇살도 바랄도 그의 등을 기댄다. 아름다운 수채화 같은 365편의 진실한 이야기 14,300원 400쪽 퍼플



명랑일기

밝고 맑고 유쾌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이야기. 삶이 뭐 별건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읽다보면 저절로 ㅎㅎㅎ 웃음이 이어지는 365편의 명랑한 얘기 15,200원 396쪽 퍼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까이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서터(피정)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곶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64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